

지역 소식통

정읍시, 농기계 임대료 '반값' 혜택 1년 연장

정읍시가 농기계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6년 12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정읍 지역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관내 5개 임대사업소(본소 포함)가 보유한 95종 1618대의 모든 기계를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7만8,984농가가 9만3,929대의 농기계를 임대했으며, 감면된 임대료 규모는 10억6,000만원에 달한다. 시는 이번 연장 조치로 약 1만 6,000여 농가가 2억2,000만원 상당의 추가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출생 기념품 정읍사랑상품권으로 변경

정읍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시는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출생 축하 기념품을 기존 물품에서 시민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정읍사랑상품권'으로 변경해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은팔찌나 아기 이불 세트 등 실용 기념품을 제공해 왔으나,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실용성이 높은 지역 화폐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시는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지원 품목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다. 해당 가정에는 출생일 다음 달에 모바일 앱을 통해 10만원 상당의 정읍사랑상품권이 지급돼, 육아 용품 구입 등 각 가정의 상황에 맞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읍 한우육우협회는 출생 신고를 마친 신생아와 산모를 위해 최고급 한우와 미역을 지원한다. 이는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지역 특산물의 우수성도 알리는 일석이조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읍=김대환 기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초과달성

고창군, 작년 8억4000만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법정 의무 구매율 1.1% 넘어



고창군이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법정 의무 구매율을 초과 달성하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고창군은 이러한 법정 기준을 넘어, 전년도 총 구매액 대비 1.13%에 해당하는 약 8억4000만원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먼저, 고창군은 우선구매율 달성을 위해 구매 담당자의 인식개선과 역량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삼았다. 전복특산물자치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주관한 전문 컨설팅을 통해 부서별 구매 가능 품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구매 연계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보건의복지부 주관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를 찾아 다양한 생산품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구매 정보와 최신 정책 동향을 공유하면서 실효성 있는 구매 확대를 실행해 나갔다.

고창군은 행정 내부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매주 스마트정책회의를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공유하고, 부서별 실적을 상시 공개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 있는 구매를 유도했다. 아울러, 주별 목표액 달성률을 관리하며 정기적인 구매 독려를 이어가는 등 연중 끊임없는 관리 체계를 유지했다.

고창군은 지난해 2차례에 걸친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행사를 열고, 실질적인 판로 확대를 지원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책임 의식을 높이기에도 힘썼다.

심덕섭 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 교육과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 상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지역안전지수 등급 지속 상승

'화재·생활안전·자살·감염병' 4개 분야 향상

부안군은 지역안전지수 등급이 상승하며 주민 안전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생활안전·자살·감염병 4개 분야 향상

부안군은 지역안전지수 등급이 상승하며 주민 안전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생활안전·자살·감염병 4개 분야 향상

실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군의 평균 등급은 2024년 3.6등급에서 2025년 3등급으로 상승해 전반적인 안전도가 눈에 띄게 향상됐다.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등 여러 분야의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 등급이 낮을수록 안전한 지역을 의미한다.

분야별로는 생활안전 분야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화재 분야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감염병 분야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자살 분야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승했다.

이번 등급 상승은 교통안전 시설 확충,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재난·재해 대응체계 강화, 생활안전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점검 등의 노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주민 참여형 안전 활동과 현장 중심의 예방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지역안전지수 등급 상승은 행정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취약 분야를 면밀히 분석해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부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 중심의 정책을 지속 추진해 지역안전지수의 추가적인 개선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1~2월 글로벌 청년 겨울관광 캠프 첫 운영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대상,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진행... 겨울 비수기·글로벌 홍보 동시 대응

정읍시가 겨울철 관광 비수기를 타개하고 정읍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놨다. 시는 농한기를 맞아 비어있는 농업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정읍 글로벌 청년 겨울캠프'를 기획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오는 19일부터 2월 14일까지 총 4주간 이어진다. 2주씩 두 차례(기수)에 걸쳐 진행되며, 각 기수에는 외국인 유학생 30명과 한국인 서포터즈 10명 등 총 80명이 정읍을 찾아 머무르게 된다.

이 사업은 그동안 가을에 집중됐던 정읍의 관광 구조를 개선하고, 겨울

철에도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가 이어지는 새로운 관광 모델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유재산의 특화된 활용'이다. 시는 농업 계열근로자가 입국하지 않는 겨울철에 비어있는 공공기숙사를 참가자들의 숙소로 제공했다. 이는 유류 시설을 방지하지 않고 관광 콘텐츠의 핵심 기반으로 전환한 모범적인 적극행정 사례로 꼽힌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 대상을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으로 설정했다. 이들이 단순한 방문객에 그치지 않고, 정읍에 머물며 직접 경험한 매력을 전파하는 확산형 홍보 구조를 설계한 것이다.

참가자들은 캠프 기간 내장산 국립공원과 구절초 지방정원,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등 지역의 대표 명소를 탐방한다. 또한 겨울 농촌 체험과 전통 문화 습득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개인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 제작과 팀별 과제(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청년의 시각으로 정읍 관광을 국내외에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캠프의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앞으로도 창의적인 관광 자원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글로벌 홍보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모델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스마트팜 장비 설치 지원한다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 30일까지 신청

정읍시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서두른다. 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생산성은 높이고 노동력은 획기적으로 줄이는 '2026년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농업 시설에 ICT 기술을 접목해 농작물의 생육 환경을 원격·자동으로 관리함으로써, 노동력 절감과 품질 향상을 동시에 꾀하는 정밀 농업 실험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기존 온실에 첨단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우선 시설원에 현대화를 위해 △자동개폐기 △환풍기 △차광시설 △무인방제기 △양액재배시설 등의 설치를 돕는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여 경영비를 낮추기 위해 다경보온 커튼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 절감 시설도 지원 품목에 포함했다.

특히 ICT 융복합 확산을 위해 △환경센서 △작물 생육 센서 △영양장비 등 각종 정보통신 장비 설치도 지원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사업 대상지 소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미디어센터, 제1기 미디어교육 교육생 30일까지 모집

기초부터 AI 콘텐츠 제작까지

부안미디어센터는 군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제1기 미디어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2월부터 4월까지 운영되며 기초 디지털 활용 과정부터 창작·AI 기반 콘텐츠 제작 과정까지 단계별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제1기 미디어교육은 태블릿 드로잉 및 이모티콘 제작, 스마트폰·컴퓨터 활용 입문, AI를 활용한 블로그·오디오 콘텐츠 제작, 단편영화 제작 과정 등 총 6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과정별로 대상 연령과 난이도를 구분해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참여자부터 창작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스마트폰·컴퓨터 활용 과정

에서는 촬영, 파일 정리, 문서 작성, 인터넷·메신저 활용 등 생활 밀착형 디지털 기능을 다루며 창작 과정에서는 AI 도구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실습을 통해 참여자가 직접 기획·제작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교육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부안미디어센터 방문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청년후계농 바우처 지원 연장

고창군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전북에서 처음으로 바우처 지원이 끝난 청년들에게도 2년간 추가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 신청 대상자는 2021년, 2022년 청년후계농 선정자 중 바우처 지급이 종료된 청년농업인으로, 오는 28일까지 신청 받는다.

그간 고창군은 촘촘한 현장 중심의 청년창업농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 결과 청년창업농의 영농 정착률이 96.8%에 이르는 높은 성과를 이어나가고 있다.

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6년부터는 '청년 CEO 육성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한다. 이를 통해 경영·마케팅·스마트농업 교육 등 실무 역량을 강화해 연 1억원 이상 소득을 창출하는 부농 청년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 기반이 없는 신규 청년농업인을 위한 멘토-멘티 매칭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고창에서 활동 중인 토착 청년농업인이 멘토가 되어 귀농·귀촌 청년과 경험을 공유하며,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상생형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